

1949년 이후 중국 외교의 전개와 변화:

팍스아메리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참여

박 홍 서*

目 次

- I. 서론
- II.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 구축과 소련의 '갈등적 협조'
- III. 중국, 팍스아메리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참여
- IV. 결론: 미중간 '신알타체제'의 출현?

I. 서론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외교를 설명하는 핵심적 변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에 내재한 이질적 변인인가 아니면 중국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변인인가? 즉,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는 중국 특유의 속성에 기반하는가 아니면 중국이 위치한 국제정치의 세력관계에 기인하는가?

본 논문은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기반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을 중국을 둘러싼 국가간 세력관계로부터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전후 미소 주도의 '알타체제(Yalta system)'와 소련붕괴후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와의 연계속에서 분석한다. 이에 기반해 건국후 중국은 미소 양국이 구축한 헤게모니 국제질서에 거부자 혹은 참여자로서 행동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 그 참여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무엇이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가라는 문제는 소위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분석수준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인간본성 및 행위(제 1이미지), 국가구조(제 2이미지), 그리고 국제체제(제 3이미지)가 그것이다. 제 1, 2이미지가 행위자의 '속성'을 의미한다면, 제 3이미지는 행위자가 위치해 있는 '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49년 국

*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박사후 연구원.

가 수립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을 제 1, 2이미지가 아니라 제 3이미지의 결과로 가정할 것이다.²⁾

국가간 세력관계를 통한 설명은 속성을 강조하는 설명보다 중국의 외교행태를 보다 간결히 설명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강점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행위자 중심적 연구는 각각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변인이 필요하다는 '과다변인'의 문제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국의 대소일변도 정책이나 이후 중소분쟁에 따른 대소 강경책,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대미접근 및 개혁개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에 내재된 다양한 설명변인이 필요하다. 그 결과 "변인의 무한확장(infinite proliferation of variables)"이란 방법론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³⁾

더욱이, 국가간 세력관계를 통한 구조적 설명은 행위자 중심적 연구가 직면하는 '동어반복성'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근대 과학의 핵심적 설명방식이 설명항과 피설명항의 분리에 있다면, 중국을 둘러싼 국가간 세력관계(설명항)는 중국외교(피설명항)와는 독립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중국외교를 그 자체의 속성으로 설명하려는 행위자 중심적 연구의 동어반복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우선 국제정치학의 구조 중심 이론이 전제하는 일반적 가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의 성격 및 변화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3, 4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건국 후 중국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
- 1) Kenneth N. Waltz, 『Me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이외에 국제정치학의 분석수준간 논쟁에 관해서는 J. D. Singer,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K. Knorr and S. Verba, ed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p. 77-92; Barry Buzan,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onsidered』, Ken Booth and Steve Smi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pp. 198-216 참조.
 - 2) 기존의 중국외교정책 연구들에 관한 메타분석은 박홍서, 『중국외교안보연구의 '구름'과 '시계' 모형』,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집, 2호 (2005), pp. 141-168 참조.
 - 3) 행위자 중심적 연구의 과다변인 문제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 65 참조.
 - 4) 행위자 중심적 설명이 직면하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은 박홍서, 『중국외교안보연구의 '구름'과 '시계' 모형』, pp. 155-157 참조. 물론, 이것은 본 논문이 중국에 내재한 변인들을 무시, 혹은 간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조만을 강조하는 설명은 '뒤집어 놓은 환원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72.

II.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 구축과 소련의 '갈등적 협조'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3가지의 원리(ordering principle)로 무정부성, 단위로서의 국가의 기능, 그리고 국가간 세력배분을 제시한다. 이중 무정부성과 개별 국가들의 기능은 일관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국가간 세력배분의 양상이 국제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적 변인이 된다.⁵⁾ 즉, 국가간 힘의 크기가 개별 국가의 외교행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들간의 역학관계는 그들 상호간 행태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약소국들의 행태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 된다.

이와 같다면, 1949년 건국후 중국의 외교정책 역시 중국을 둘러싼 국가간 세력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대전이후 구축된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국제질서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국제정치적 맥락이 된다. 주지하듯, 미국은 2차 대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헤게모니 국가로 발전하였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헤게모니 질서(Pax Britannica)가 최종적으로 붕괴되었던 반면,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질서(Pax Americana)는 2차 대전을 통해 보다 공고히 구축되었다.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인 유럽제국은 승패에 상관없이 엄청난 전쟁비용을 감내해야 했던 반면 미국은 지정학적 유리함과 전쟁특수로 인해 오히려 세계대전을 통해 부유해진 거의 유일한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곧 미국의 헤게모니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기타 차상위 강대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사실,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몰락이 주로 과도한 국제질서 유지비용에 기인한다면 차상위 국가에게 일정한 '지분'을 양도하고 질서 유지에 동참하게 하는 전략은 합리적인 수밖에 없다.⁷⁾

소련은 미국이 '팍스아메리카'를 유지하기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었다.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련 역할의 중요성은 이미 2차 대전중에 명확히 드러났다. 영미 양국은 비록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등장한 사회주의 소련과 이념적으로 갈등하였지만 유럽전선에서 독일의 강력한 군사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협력이 절실했던 것이다. 실제로 1941년 6월 독소 불가침조약이 파기되고 독소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연합국

5)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88-101.

6) 2차 대전 종결시 미국은 전세계 금보유액의 2/3 보유하고, 전세계 재화생산의 1/3을 생산하였다. 군사력도 해외주둔군 750만명 포함 1,250만명의 대군과 강대국 최초의 핵무기 보유 국가였다. 폴 케네디 씀, 이백주의 옮김,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8), p. 485.

7) 헤게모니의 쇠퇴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ch. 4-5 참조.

의 희망대로 소련은 독일 패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⁸⁾

1945년 2월 개최된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은 이러한 미소간 협력관계를 공식화하는 역사적 계기라 할 수 있다. 폴란드 문제와 같은 전후 유럽지역의 재편문제에서부터 극동문제의 처리에 있어서까지 미소 양국은 상호입장을 조정하였다. 특히, 미국은 극동에서 대일 전쟁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소련에게 사회주의 몽골공화국의 유지, 사할린 및 쿠릴열도의 지배권 등을 보장하였다.⁹⁾

물론, 전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미소간 협조는 순수한 의미의 협조라 볼 수는 없었다. 1946년 처칠의 '철의 장막'이 상징적으로 표상하듯, 미소 양국간 협조는 '냉전'과 동전의 양면이었던 것이다. 미소 양국은 각자의 세력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그 전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쟁적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즉, 미소 양국은 전후 국제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직접적 충돌은 배제하면서도, 상호간 세력권의 접점인 그리스, 한국, 쿠바, 대만,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세계 전지역에서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권은 미국 헤게모니 질서속의 "게토(ghetto)"였으며, 미국에게 소련은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갈등적' 협조자라 할 수 있었다.¹¹⁾

1950년 한국전쟁은 이러한 미소간 갈등적 협조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스탈린은 애초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고 무기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6월 27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의장이자 소련대사인 말릭(Jacob Malik)이 본국 소환을 빌미로 불참한 사실, 그가 복귀한 8월 한국전쟁을 '내전'이라 규정하고 모든 외국 군대의 철군을 주장한 사실, 그리고 10월 중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 등은 이를 시사한다.¹²⁾ 트루만 미행정부 역시 한국전

8) 폴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p. 494. 사실, 2차 대전 직전의 유럽 상황은 영국, 독일, 소련 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라 할 수 있다. 영국은 뮌헨협정을 통해 대독일 유화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독일-소련 연계를 방지하려했다면, 소련은 대독불가침 조약을 통해 그러한 영국의 의도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결국 서방과 소련의 협력을 초래하였다.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부터 독소전쟁에 관해서는 존 루카치 씀, 이종인 옮김,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택, 1941년 6월』, (서울: 책과 함께, 2006) 참조.

9) Robin Edmonds, 'Yalta and Potsdam: Forty Years Afterwards', 『International Affairs』, Vol. 62, No.2, (Spring, 1986), pp. 200-204.

10)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는 미소간 직접적 대결이라 할 수 있으나, 핵전쟁에 대한 상호간 우려로 인해 결국 쿠바와 터키에서 미사일을 공동 철수하는 조건으로 종결되었다. 그레엄 엘리스/ 필립 켈리코 씀, 김태현 옮김, 『결정의 에센스』, (서울: 모음북스, 2005), pp. 431-446 참조.

11) 냉전을 미소 상호간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조로 보는 시각은 이매뉴얼 윌러스틴 지음, 한기욱/정범진 옮김, 『미국패권의 몰락』, (서울: 창비, 2003), pp. 23-63; 이매뉴얼 윌러스틴, 테렌스 K. 홉킨스 씀, 김영아, 백승욱 옮김, 『이행의 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pp. 265-266; 이삼성, 『냉전체제의 본질과 제 2차 냉전의 발전과 붕괴』,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84-122 참조.

쟁이 대소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하였다. 1951년 4월 전쟁사령관 맥아더의 전격적인 해임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1950년 10월 중순 중국 인민지원군의 전면개입으로 연합군의 퇴각이 본격화될 무렵 맥아더의 핵무기 공격주장은 소련과의 3차 대전을 우려하던 트루만으로서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¹³⁾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이러한 미소간 알타체제의 해체를 의미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제 미국은 소련의 관할구역 및 업무를 온전히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91년 발발한 걸프전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냉전기 소련은 이라크와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팽창정책을 제어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소련은 이라크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이라크 최대 무기수출국이었으며, 집권 바트당의 후세인 정권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소련은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중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기타 유엔 상임이사국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등 이라크로 인한 지역안정의 훼손을 우려하고 차단하려 하였던 것이다.¹⁴⁾

알타체제 해체 후 미국이 부담해야 할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헤게모니 국가의 몰락은 일반적으로 헤게모니 질서의 관리비용(전쟁을 포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서 가속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국의 '과잉팽창'으로 이미 1980년대부터 헤게모니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미국에게 소련의 붕괴는 냉전의 승리라기보다는 헤게모니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는 그 징후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이상과 같은 전후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질서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 건국후 중국외교를 국제체제의 맥락에서 설명한다면, 미소간 갈등적 협조를 통해 구축된 전후 헤게모니 질서와 소련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중국의 외교행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이라 할 수 있다.

12)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72-79;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88-191.

13) 데이비드 할버스탐 씬, 정윤미 옮김, 『콜디스트윈터: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 (서울: 살림, 2009), pp. 912-914 참조.

14) Fred Halliday, 「The USSR and the Gulf War: Moscow's Growing Concern」, *MERIP Middle East Report*, No. 148, Re-Flagging the Gulf, (September/October 1987), pp. 10-11.

15) 미국의 과잉팽창에 따른 헤게모니 쇠퇴에 대해서는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p. 231-232; 폴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pp. 686-710 참조. 동일한 논리에서, 영국 헤게모니의 몰락도 세계 1차 대전의 막대한 전비지출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 지오바니 아리기, 비벌리 J. 실버 외 씬, 최홍주 옮김, 『체제론으로 보는 세계사』, (서울: 모티브북, 2008), pp. 126-127.

Ⅲ. 중국, 팍스아메리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참여

구조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무정부성'에 기반한 국제정치에서 개별국가들의 최고 국가목표는 '생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생존(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국가 대 전략을 수립한다. 그 전략 중 하나는 기존 국제질서로의 편승(참여발전) 혹은 거부(독자발전)일 것이다. 1949년 신생 중국이 생존을 위해 자문해야 할 문제 역시 그와 같았다. 즉,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편승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인가? 후자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으로의 편승인가? 그렇지 않다면 '독자노선'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중국은 필연적으로 헤게모니 미국과 그 갈등적 협조자 소련과의 세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국 이후 중국의 생존전략은 미국 헤게모니 질서로부터의 '탈궤(脫軌)' 혹은 그것으로의 '접궤(接軌)' 사이의 어느 한 점에서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생존전략이 탈궤적 방식이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의 생존전략은 접궤적 방식이었다. 마오시기나 개혁개방기이나 중국의 국가목표가 생존을 위한 '현대화'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나, 그 방법은 자본주의적 발전방식을 거부하거나(마오) 혹은 지지(개혁개방)한다는 점에서만 상반되었다. 즉, 1958년 대약진 운동이나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전략은 그 방식만 상반되었을 뿐, 모두 중국의 현대화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¹⁶⁾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미, 대소 세력관계는 각각의 상황에서 탈접궤 생존전략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동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중국의 구체적 생존전략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구조적 세력관계 속에서 '강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국이 후, 중국의 외교노선을 표상하는 '대소일변도,' '중간지대,' 그리고 '화평굴기'와 같은 개념들은 그러한 구조적 강요에 대한 행위자 중국의 대응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 대소일변도: 한국전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의 편입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거의 종결되던 1949년 6월 마오는 '대소일변도(對蘇一邊倒)' 정책을 신생 중국의 외교방침으로 천명하였다. 마오에 따르면, 중국은 소련이 주도하는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야 하며, 영미의 원조를 희망하거나 소위 제 3의 길에 대

16) 왕후이(汪暉)는 마오시기의 국가발전전략을 '반근대성적 근대화 전략'으로, 반면 개혁개방기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근대화 전략으로 간주한다. 왕후이 지음, 이옥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서울: 창비, 2003), pp. 46-54. 중국의 탈궤 및 접궤 전략에 대해서는 백승욱, 『중국에서의 세계화·지역주의·민족경제 논의: 탈궤에서 접궤로』, 『동향과 전망』, 2002년 겨울호 (통권 제 55호), pp. 44-60 참조.

한 환상은 버려야 했다.¹⁷⁾ 이에 따라 10월 1일 국가수립후 신생 중국은 대소 동맹관계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1950년 2월 14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소일변도 정책을 보다 공식화하였다.

이와 같다면, 신생 중국은 미국 헤게모니 질서를 거부하고, 그 대신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으로의 편승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신생 중국의 대소일변도 전략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공내전이 종결될 무렵 공산당이 미국의 외교적 승인 확보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공산당은 미국이 국민당 지원을 포기하면 언제라도 중미간 국교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¹⁸⁾ 마오가 대소일변도를 천명한 직후에도 대미 접촉을 통해 대소일변도 정책은 당차원의 전술일 뿐임을 설명하고 여전히 대미관계 정상화를 희망했다는 사실 역시 이를 반증한다.¹⁹⁾

사실,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공식관계 수립이 종속적인 대소일변도 보다 오히려 매력적인 안전보장 전략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애초 소련은 마오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스탈린 정권의 대중국 정책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철저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후 서구 각국에서 발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혁명이 실패하고 오히려 서구 제국이 러시아 내전에 개입하자 신생 소련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소련은 국내적으로 '신경제정책(NEP)'이라는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전통적 '국제주의'가 아닌 '일국사회주의'로 포장된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련은 서구 제국의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소련은 대리당 개념인 중국공산당을 1921년 7월 창당시키고, 1924년 혁명세력인 중국국민당과의 연대(1차 국공합작)를 도모했던 것이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소련에게 마오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공산세력은 매력적인 동맹세력일 수 없었다. 즉, 장정(長征) 중이던 1935년 1월 준의(遵義)에서 소련이 지지하는 왕밍(王明) 노선을 비판하고 '중국적' 혁명전술을 주장한 마오 세력의 등장은 향후 중국공산당이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공산당에 비해 중국내에

17) 『毛泽东著作选编』,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02), pp. 372-374.

18)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41.

19)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91-92.

20) 볼셰비키 혁명후 소련의 현실주의적 대중전략과 국공합작에 관해서는 박홍서, 「제1, 2차 국공합작기 미국과 소련의 대중정책 연구: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중국연구』, 제 38집 (2006. 12), pp. 166-169 참조.

서 광범위한 세력을 가졌던 국민당과의 협력이 국가안보의 증진이라는 현실주의적 목표에 보다 부합하였다. 1936년 12월 서안사건 당시 장개석의 신변보장을 소련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나, 알타체제에 근거해 1945년 6월 국민당과의 중소우호조약을 체결한 사실, 국공내전기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공산당에게 국민당과의 타협을 중용했다는 사실 등이 이를 반증한다. 심지어 1948년 2월 공산군이 남경을 점령하자 남경주재 소련대사가 국민당과 함께 광주로 피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²¹⁾ 공산정권 수립후에도 1950년 2월 중소우호조약 체결과정에서 소련은 마오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봉건적인 우파정권으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²²⁾

소련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마오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면, 동일한 현실주의 논리속에서 미국에게 신생 중국과의 관계수립은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헤게모니의 유지를 위해 소련과의 협력은 필요하였지만, 그것은 '갈등적' 협력이었기에 중국을 이용한 소련 견제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었다. 즉, 트루만 행정부는 대소 독자노선을 추구하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정권처럼 마오 정권의 자율적인 외교정책을 기대하였던 것이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 1월 초 트루만과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연이어 미국은 중국 내전에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권에서 대만이 제외된다고 천명함으로써 대중 접근 의도를 암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루만 행정부의 대중 접근 전략은 기대했던 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전세계적 냉전 구도가 공고화 되는 상황에서 중소 양국의 이질성을 구분하지 못한 여론의 반발이 핵심적 이유였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친국민당 세력인 '중국블럭(China block)'이 행정부의 전향적인 대중정책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다수의 국민 여론도 국민당을 포기하고 공산 정권을 승인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특히, 친국민당 세력은 트루만 행정부의 전향적인 대중정책을 비판하며 행정부의 전후 대유럽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²⁴⁾

중국으로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국 승인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소극적이자 점차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국내 국민당 잔당을 패퇴시키고 대만해방을 시급한 전략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당과의 관계단절을 회피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었던 것이

21) 서안사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Youli Sun, 『China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1931-4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6), pp. 79-83 참조. 국공내전에 대한 소련의 중립적 입장은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67 참조.

22) 스탈린-모택동간 불신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헬버스탐 씀, 『콜디스트윈터』, p. 532;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서울: 형성사, 1984), p. 140 참조.

23)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p. 103.

24)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pp. 107-115; 데이비드 헬버스탐 씀, 『콜디스트윈터』, pp. 356-377.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미국에 대한 신생중국의 불만과 위협인식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지도부에게 6월 27일 미국의 대만해협 봉쇄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한국전쟁과 무관한 대만문제에 개입한 것은 국민당 잔당세력과 연계해 신생 공산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저우언라이의 표현대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신생중국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던 것이다.²⁵⁾

특히, 8월부터 전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북한에 불리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더욱 증폭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저우언라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10월 7일 38선을 월경해 압록강으로 북진하기 시작하자 중국 지도부는 군사개입을 통해 미국의 북진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국 중국 ‘인민지원군’은 10월 19일 압록강을 도하하고 11월 전면적인 공세를 취함으로써, 신생중국과 헤게모니 미국간에 무력충돌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²⁶⁾

한반도에서 발발한 중미간 무력충돌은 신생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제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속에서 한국전쟁을 공산정권의 정당성 확보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내에서도 반공주의 매카시즘이 증폭되면서 급기야 1952년 대선에서 보수적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되었다.²⁷⁾ 결국, 한국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뿌리 깊은 대소 불신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대소일변도 발전전략을 보다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중간지대: 중소분쟁과 독자노선

‘원시자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 헤게모니 질서로의 편입까지 거부당한 중국으로서는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에 편승하는 것이 유일한 국가발전전략이었다. 따라서, 1953년 개시된 제 1차 5개년 계획이 소련의 대규모 자본 및 물자 지원을 기초로 해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은 소련의 발전모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중공업 우선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의 토대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다.²⁸⁾

25) 周恩来, 「为巩固和发展人民的胜利而奋斗」, <http://cpc.people.com.cn/GB/69112/75843/75874/75994/5183866.html>; Hao Yufan and Zhao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No. 121 (March 1990), pp. 94-115.

26)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만반도 군사개입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1호 (2006), pp. 174-175.

27) 오크무라 사토시 씀, 박선영 옮김,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1), pp. 138-153; 데이비드 헬버스탐 씀, 『콜디스트윈터』, pp. 964-967.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 이후 중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소 의존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워졌다. 이제 중국은 헤게모니 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차상위 강대국 소련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불가피하게 '자력갱생'에 기초한 독자적 발전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958년 추진된 대약진 운동은 바로 그 전형이었다.²⁹⁾

이와 같다면, 중국이 최초 대소일변도 정책으로부터 적대적 태도로, 그리고 급기야 1969년 진보도에서 무력충돌까지 불사하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천명된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 노선때문인가? 혹은 '교조주의' 중국과 '수정주의' 소련간의 사회주의 이념 갈등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흐루시초프의 유화적 대미 정책을 둘러싼 중소간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의 충돌이었던가?

사실, 중국지도부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에도 여전히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1957년 11월 소련을 방문한 마오는 중소 양국간 긴밀한 단결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소관계 악화가 소련의 탈스탈린 노선이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에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비판과 함께 제기한 대미 '평화공존' 정책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 디트머(Lowell Dittmer)의 표현대로, 미중소 삼국관계를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라고 한다면, 대소 동맹을 통해 주적인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려던 중국으로서는 흐루시초프의 대미 평화공존 정책은 곧 헤게모니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인 소련으로부터도 '포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중국은 미소간 알타체제로부터 소외당한 것이다.³⁰⁾

그 결과 중국의 국가안보는 여러 측면에서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만문제와 핵보유 문제, 그리고 중인분쟁 등에서 중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였다. 대만문제의 경우, 국민당 정권이 1957년 중엽 복건성 앞 금문, 마조도에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고 대륙내 스파이 작전의 근거지로 만들자, 중국은 1958년 8월 두 섬에 대한 포격을 감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련이 냉담하게 반응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1959년 6월 소련은 1957년에 중국과 체결한 핵협정을 파기하고 대중국 핵무기 기술 이전계획을 취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9년 중인 국경분쟁시에도 소련은 중인 양국간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주장하는 등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1962년 중인전쟁시에는 오히려 인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

28) 1차 5개년 계획의 내용 및 소련의 지원,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李德彬 著, 양필승/윤정분 역, 『중화인민공화국경제사』(II), (서울: 교보문고, 1989), pp. 168-260 참조.

29) 赵付科, 李安增, 「大跃进运动成因的苏联因素探析」, 『理论'学刊』, 第4期, (2006), pp. 111-114.

30)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 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July 1981), pp. 485-516.

다. 결국, 소련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강압외교를 차단함으로써 미소간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동맹국 중국의 국가안보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 목표였던 것이다.³¹⁾

이 과정에서 중소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반면 미소관계는 안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1959년 9월 흐루시초프-아이젠하워간 정상회담은 알타체제의 갈등적 협조자였던 미소 양국간 관계를 보다 유화적으로 변화시켰다. 1960년 4월 20일자 인민일보 논설인 “레닌주의 만세”가 소련의 평화공존 전술이 갖는 이론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중소간 이념분쟁의 서막을 연 것은 이러한 미소간 협조체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³²⁾ 이와 같이, 대만문제 및 핵협정 파기 등으로 촉발된 중소 갈등 이후부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중소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념분쟁이 중소관계 악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반증하기도 한다.

한편, 소련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중국의 행태는 보다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대내적으로 문혁의 발동과 더불어 1966년 8월 홍위병들에 의해 소련대사관이 포위되었고, 1968년 국가주석 유소기는 “중국의 흐루시초프”로 규정돼 숙청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소위 ‘조반외교(造反外交)’의 기치아래 중국이 소련을 대신해 전세계 혁명세력의 “병기창”이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 연속혁명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특히, 1968년 8월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제한주권론’을 내세우며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함으로써 중국의 대소 위협인식은 극도로 증폭되었다. 1969년 3월 발발한 중소 국경분쟁은 이러한 중소간 갈등이 마침내 군사적 충돌로 폭발한 것이었다.³³⁾

그러나, 문혁과 중소분쟁이라는 대내외적 혼란 및 위기상황에서도 중국의 외교행태가 반드시 비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소 양국으로부터 고립된 중국은 소위 ‘중간지대론’을 주창하면서 미소 이외의 자본주의국가 및 제 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또한, 소련의 위협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제국주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1968년 10월 월맹에 대한 미국의 북폭 중지 결

31) 1958년 대만해협위기, 핵기술 협정 파기, 그리고 중인분쟁에서 드러난 중소간 갈등은 Melvin Gurtov and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pp. 92/130-32;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pp. 170-173;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pp. 195-204 참조.

32) 논설에서 마오의 평화공존노선이 전세계적 반제투쟁의 혁명역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련측은 레닌 역시 전쟁이 가공할 정도로 파괴적일 경우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p. 174.

33) Gurtov alt. 『China under Threat』, p. 191;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pp. 177-190. 물론, 문혁 때문에 대외적 급진외교가 초래되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구조적 현실주의의 하위이론인 ‘전도된 제 2이미지’ 이론에 따르면, 국내정치적 상황(2이미지)은 국제체제(3이미지)에 따라 발생, 변화한다. Peter Gourevitch,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 (Autumn, 1978), pp. 899-900.

정을 이례적으로 인민일보에 게재하고, 1969년 2월에는 이전에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오던 대사급 비밀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⁴⁾ 사실, 미중관계의 개선 조짐은 베트남 전쟁중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군이 38선을 월경했던 것과는 달리 베트남전에서 양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북위 17도선을 기점으로 상호간 무력충돌을 방지하였던 것이다.³⁵⁾

결국, 미중 양국은 1971년 7월 키신저의 비밀방중을 기반으로 이듬해 2월 닉슨이 상해를 방문해 역사적인 상해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상해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대만으로부터의 군사력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중미관계는 급진전하게 되었다. 1949년 신생중국이 외교관계 수립의 조건으로 미국-국민당 관계단절을 주장한 이후 20여년만에 그 요구가 수용됨으로써 미중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개혁개방: 대미수교와 미국 헤게모니로의 편승

70년대 초 미중 양국의 급속한 관계개선이 미소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타체제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갈등적 협조자 미소 양국은 소위 '데탕트'로 표현되는 보다 협력적인 상호관계를 정초하기 시작하였다. 미중간 상해공동성명이 발표된 3개월 후인 1972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닉슨-브레지네프 정상회담에서 미소 양국은 역사적인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과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엄격히 제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다면, 미중관계 개선은 미소간 알타체제의 약화가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50년대 말 중소분쟁 이후 알타체제의 '이방인'이었던 중국이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드디어 편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중소 삼각관계에서 '축(pivot)'의 역할을 하게 된 미국의 전략적 위치는 매우 유리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소련과 침예한 갈등관계를 갖는 중국을 헤게모니 질서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중소간의 경쟁을 통해 미국의 헤게모니를 보다 견고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미국은 차상위 강대국 중소 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중소간의 갈등관계는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헤게모니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⁶⁾

물론, 이것은 미국이 중소 갈등에 있어 중립을 고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미국은 양국중 어느 국가라도 헤게모니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다른 일방과의 협력관계

34)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pp. 191-193.

35) 李丹慧, 「38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pp. 428-450

36)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pp. 498-500.

를 강화해 제어하려는 전략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9년 1월 1일 미중 국교 정상화는 소련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미중간 상호이해가 부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1972년 조인된 전략무기제한협정에 대한 소련의 미온적인 태도와 1978년 에티오피아 개입은 미소관계를 경색시켰으며, 반면 1977년 11월 통일 베트남이 소련과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수립한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9년 2월 17일 중국의 베트남 침공 역시 미중간 대소련 공동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졌다. 국교정상화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 중국은 '소련의 앞잡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지역패권의 발로라고 비판하면서 '징벌전'을 개시했던 것이다.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도 미중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⁷⁾

미중 국교정상화는 중국이 헤게모니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실질적 개선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상술한 '전도된 제 2이미지' 이론에 따르면, 한국가의 성격 및 정책은 국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다면, 1978년 12월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에서 천명된 개혁개방정책은 대미관계 정상화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1958년 대약진 운동이 소련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자력갱생 발전전략이었다면, 1979년 이후 전개된 개혁개방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접촉'한 대외 의존적 발전전략인 것이다. 1987년 13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대미관계 정상화 이후 추진된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의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기도 하였다.³⁸⁾

그러나, 1980년대 중국의 대미관계가 안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1989년 6.4 천안문 사건은 중미관계의 극적인 악화를 초래했으며, 이후 인권 및 대만문제 등을 둘러싸고 증폭된 갈등은 1995-96년 대만해협위기로 극대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미간 갈등 역시 양국이 위치한 국제체제의 변화가 그 근원적인 동인이라 할 수 있었다. 1985년 집권한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의 '신사고'정책과 동서냉전의 완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1년 12월 소련연방의 해체가 그것이었다. 즉, 2차 대전 이후 반세기간 지속되었던 미소간 알타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알타체제의 붕괴는 미소간 갈등적 협조에 의해 유지되던

37) 사실, 미중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카터행정부부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지지하지 않았다. 학정가능성과 그로인한 지역불안정 및 대소관계 악화 차단이 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이것 역시 전형적인 패권 논리라 할 수 있다. 소련변인과 미중관계 정상화, 그리고 중월전쟁에 대해서는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75-77/ 90-91; 오크무라 사토시 씬,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p. 203;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p. 503. 참조.

38) 미중관계정상화와 개혁개방의 상관관계는 趙自強, 「中美关系正常化与中国对外开放的启动」, 『理论月刊』, 2008年 第5期, p. 151 참조.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정치적 배경에 관해서는 서진영,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적 사회주의」, 국제정치학회 연례학회발표문 (1989), pp. 283-285 참조.

미국주도의 헤게모니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 미국의 헤게모니 지위는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소련과의 협조를 통한 패권유지의 구체적 방식은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소련 변인을 통해 상호관계를 발전시켜왔던 미중관계는 어떠한 형태이건 새롭게 정립되어야만 하였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급속하게 차상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0년대 초중반 미중관계가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보수진영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중국위협론자들은 그 근거로 중국의 이념적, 문화적 이질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급속한 중국의 발전 및 세력확장이 중국위협론의 핵심적인 근거였다. 반면, 중국은 천안문 사건을 사회주의 중국을 '평화적으로 전복(和平演變)'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로 인식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다.³⁹⁾ 실제로, 미중관계는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이 대중 최혜국 대우부여를 인권문제와 연계함으로써 긴장되었으며, 1995년 6월 리덩후이의 미국방문 직후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훈련과 이에 대한 미국의 항모파견으로 급속히 경색되기도 하였다.⁴⁰⁾

그러나, 탈냉전기 초반 미중간 긴장관계는 대만해협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으로서는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적절한 관리라는 맥락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했으며, 경제발전이 최고의 국가목표인 중국에게도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위해 안정적인 대미관계는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후 '화평굴기(和平崛起)'로 표상될 유화적 국가대전략을 내세우면서 안정적 대외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⁴¹⁾ 실제로,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이 1997년과 1998년 연이어 개최되고 그 결과 소위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가 수립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나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은 국제레짐에 적극 참여하고, 1997년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사 위안화 절하압력을 수용치 않았으므로 주변국들에게 '책임 있는' 지역 강대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기도 하였다.⁴²⁾

39) 중국위협론의 다양한 논리와 그 비판은 박홍서, 「중국위협론의 논리비판: 경험적 근거의 문제」, 『중국 연구』, 제 25집 (2000), pp. 115-146 참조. 화평연변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경계는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325-326 참조.

40) David M. Lampton,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 S. -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p. 39-55.

41) 대만해협위기 이후 새롭게 정립된 중국의 국가대전략에 대해서는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02-135 참조. 화평굴기 개념에 대해서는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 (2005), pp. 216-234 참조.

42)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아울러, 중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전세계적 대테러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현 국제체제내의 제반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분담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1차 북핵위기(1993-94) 시기 소극적 문제해결 태도와는 판이하게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이다.⁴³⁾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9월 미 국무부 차관 졸릭(Robert B. Zoellick)이 미중관계를 현 국제체제내의 '이익상관자(stake-holder)' 관계라고 정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현 국제질서의 안정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주장은 미소간 알타체제 붕괴후 새로운 미중간 협조체제가 등장했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다. 특히,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정권도 금융위기 및 북핵문제와 같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 역시 이에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피력하는 등 '한배에 탄(同舟共濟)' 미중간 이익상관자관계는 현재 보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IV. 결론: 미중간 '新알타체제'의 출현?

이상에서, 본 논문은 구조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1949년 이후 중국의 외교행태를 강대국간 힘의 배분으로 구성된 국제체제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힘이라는 것이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인이라면, 1945년 이후 국제질서가 헤게모니 미국에 의해 구축, 유지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차상위 강대국인 소련과의 '갈등적 협조'를 통해 헤게모니 국제질서인 '알타체제'를 1991년 소련 붕괴시까지 유지하였던 것이다.

건국 후 중국 외교는 이러한 미국 헤게모니 질서와의 관계속에서 전개되었다. 중국은 자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따라 미국 헤게모니질서로부터의 소외 혹은 그것으로의 참여 사이에서 구체적 외교행태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대략 3단계로 구분한다면, 건국후 중국외교는 1) 대미관계 정상화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소련 의존적 발전전략, 2) 중소갈등으로 인한 미소간 알타체제로부터의 완전한 소외, 그리고 3) 대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미국 헤게모니 질서로의 편승을 보여 왔다.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 32-36

43) 미중관계의 개선이 1차 북핵위기에 비해 2차 북핵위기에 중국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추동했다는 주장은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달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6집 1호 (2006), pp. 112-117 참조.

44) 오바마 행정부시기 미중관계의 논리가 갈등적 '세력균형'에서 협력적 '이익균형'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박홍서, 「오바마 시대의 미중관계: 세력균형과 이익균형의 사이」, 『동아시아브리프』, 제 4권 1호, (통권 13호, 2009), pp. 146-153 참조.

향후 중국외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상술한 이론적 전제에 따르면, 헤게모니 미국과의 관계가 향후 중국외교의 구체적 양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동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오시기의 독자적 발전전략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대략적인 선택지는 1) 미국 헤게모니 질서로의 지속적 편승 혹은 2) 그에 대한 도전을 통한 중국 주도의 헤게모니 질서 창출이 될 것이다. 두가지 중 어떤 것이 중국외교의 향후 경로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역시 향후 미중간 세력관계가 그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다. 즉, 합리적 행위자로서 중국은 그 세력관계의 유불리에 따라 대미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다면, 미국 헤게모니 질서로의 편승을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이 근시일내에 포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기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여전히 열등한 '종합국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미 편승 전략이 반드시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개념에서 보여지듯, 최근 금융위기에 봉착한 미국에게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중국 또한 자국 산품의 출구로서 안정적인 미국시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미중관계는 종속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이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포함한 각종의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중간 협력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중간 새로운 '알타체제'의 출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문제는 중미간 세력관계가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에서(그것이 현실화된다는 조건에서) 중국외교의 향배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미 편승 전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자국 주도의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를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은 평화적으로 수행될 것인가 아니면 분쟁적일 것인가? 세력관계가 유리한 상황에서 편승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구조적 현실주의의 이상사례라는 점에서 제외된다면, 따라서 핵심적 문제는 결국 미중간 세력전이가 평화적일 것인가 아니면 갈등적일 것인가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공세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예견대로 '비극'으로 종결될 것인가?⁴⁶⁾ 아니면, 다소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할지라도 국제체제 유지를 위해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귀납주의의 오류에 직면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통해 이론적 적실성을 판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세계적 헤게모니 전환에 관련된 전쟁 사례들은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향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석사례가 될 것이다. 즉, 19세기말 20세기 초 미국의 부상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뤄졌던데 비해 독일과 일본은 왜 그렇지 못했는가? 상호간 '만족도'라는 관념변인을

45) Niall Ferguson, 「Team 'Chimerica」,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17, 2008 (p.g.A19).

46)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pp. 373-377.

도입해 설명하려는 기존 현실주의 이론의 애드호크(ad hoc)적 설명을 배제한다면, 강대국간 지정학적 위치(세력권의 거리), 세력관계의 변화 속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준 등은 미중간 세력전이의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관념적 변인들이 될 것이다.⁴⁷⁾ 무수한 상황변인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미중관계는 20세기 초 영국-독일 및 미국-일본 관계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문헌

- 그래엄 엘리스/ 필립 젤리코 씀, 김태현 옮김, 『결정의 에센스』, 서울: 모음북스, 2005
-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 2005
- 김우상, 『신한국책략 II: 동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나남, 2007
- 데이비드 헬버스탐 씀, 정윤미 옮김, 『콜디스트윈터: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 서울: 살림, 2009
- 박홍서, 「중국위협론의 논리비판: 경험적 근거의 문제」, 『중국연구』, 제 25집, 2000
- _____, 「중국외교안보연구의 '구름'과 '시계' 모형」,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집, 2호, 2005
- _____,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민국 군사개입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1호, 2006
- _____,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6집 1호, 2006
- _____, 「제1, 2차 국공합작기 미국과 소련의 대중정책 연구: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중국연구』, 제 38집, 2006
- _____, 「오바마 시대의 미중관계: 세력균형과 이익균형의 사이」, 『동아시아브리프』, 제 4권 1호 통권 13호, 2009
- 백승욱, 「중국에서의 세계화·지역주의·민족경제 논의: 탈케에서 접케로」, 『동향과 전망』 2002년 겨울호, 통권 제 55호
- 서진영, 「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 중국적 사회주의」, 국제정치학회 연례학회발표문, 1989
- 왕후이 지음, 이옥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서울: 창비, 2003
- 오크무라 사토시 씀, 박선영 옮김,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1
- 이매뉴얼 윌러스틴, 테렌스 K. 홉킨스 씀, 김영아/ 백승욱 옮김, 『이행의 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 이매뉴얼 윌러스틴 지음, 한기욱/정범진 옮김, 『미국패권의 몰락』, 서울: 창비, 2003

47)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은 만족도 변인을 도입해 강대국간 세력전이 양상을 설명하려는 대표적 현실주의 이론이다. 김우상, 『신한국책략II: 동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나남, 2007), pp. 233-234.

- 이삼성, 「냉전체제의 본질과 제 2차 냉전의 발전과 붕괴」,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서울: 형성사, 1984
- 존 루카치 씀, 이종인 역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택, 1941년 6월』, 서울: 책과 함께, 2006
- 지오바니 아리기, 비벌리 J. 실버 외 씀, 최홍주 옮김,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서울: 모티브북, 2008
- 李丹慧, 「38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박두복 편, 『한국 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 李德彬 著, 양필승/윤정분 역, 『중화인민공화국경제사』(Ⅱ), 서울: 교보문고, 1989
- 폴케네디 씀, 이백주의 옮김,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8
- 『邓小平文选』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刘自强, 「中美关系正常化与中国对外开放的启动」, 『理论月刊』, 2008
- 『毛泽东著作选编』,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02
- 赵付科/李安增, 「大跃进运动成因的苏联因素探析」, 『理论学刊』, 第4期, 2006
- 周恩来, 「为巩固和发展人民的胜利而奋斗」
- <http://cpc.people.com.cn/GB/69112/75843/75874/75994/5183866.html>
- Buzan, Barry,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onsidered」, Ken Booth and Steve Smi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Christensen, Thomas J.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 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July 1981
- Edmonds, Robin, 「Yalta and Potsdam: Forty Years Afterwards」, 『International Affairs』, Vol. 62, No. 2, Spring, 1986
- Ferguson, Niall, 「Team 'Chimerica」,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17, 2008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Gourevitch, Peter,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 Autumn, 1978
- Gurtov, Melvin and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 Halliday, Fred, 「The USSR and the Gulf War: Moscow's Growing Concern」, 『*MERIP Middle East Report*』, No. 148, Re-Flagging the Gulf, September/October 1987
- Hao, Yufan and Zhao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No. 121, March 1990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Lampton, David M,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 S. -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 Singer, J. D,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K. Knorr and S. Verba, ed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 Sun, Youli, 『*China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1931-4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6
- Waltz, Kenneth N, 『*Me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Abstract

Between Estrangement and Bandwagon:

The U. S. Hegemonic World Order and the Chinese Foreign Policy since 1949

Hongseo Park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China's foreign policy since 1949 in the context of the US hegemonic order, *Pax Americana*. Since 1945, the US has kept its hegemonic world order embedded in the Yalta system, a 'confrontational concert system' with the USSR. Under the world order, failure to normalize the relations with the US led China to take "lean to one side(USSR) policy" in the early 1950's. From the late of the decade, however, China became isolated even from the USSR due to the latter's rapprochement with the US, which led to China's third world diplomacy. This thorough estrangement from the Yalta system ended with China's normalization with the US in 1970's. The China-US normalization meant China eventually obtained membership of the US hegemonic order. China is not likely to directly challenge to the US hegemony in the context of power asymmetric relations with the US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China's foreign policy, The US-China relations, the US hegemonic order, Pax Americana, Strategic triangle, Yalta system

투 고 일 : 2009. 10. 10

심 사 일 : 2009. 10. 20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1. 16